



내년부터 임금피크제 도입.. 노사합의로 실시 조합원 74.8%, 비조합원 74.9% 찬성 58세 정년자중 55세부터, 퇴직금중간정산제도 실시

내년 1월부터 일정 연령에 도달할 경우 더 이상 임금이 오르지 않는 임금피크제가 도입된다.

노사는 8월 29일 정재용 위원장과 장영섭 사장 등 노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금년도 3분기 노사협의회를 열고 내년 1월부터 '정년이 만 58세인 사원 가운데만 55세 이상인 사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기로 잠정합의했다.

이어 조합은 30일과 31일 이틀간 '임금피크제 노사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및 사원 찬반투표를 실시, 잠정합의안을 추진했다.

찬반투표에는 투표대상 조합원 404명 가운데 76.7%인 310명이 참여, 투표자 중 74.8%(232명)가 찬성표를 던졌다.

함께 실시된 비조합원 찬반투표에선 투표 대상자 250명 가운데 71.6%인 179명이 투표에 참여, 투표자 중 74.9%(134명)가 찬성의사를 표시했다.

정 위원장은 노사 잠정합의안을 추진 받은 뒤 인사말을 통해 "투표에 참여해 주신 조합원을 비롯한 선후배 사원들께 조합을 대표해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우리 모두 고통을 분담하는 어려운 결정을 내린 만큼 오늘의 결정이 연합뉴스 발전을 위한 원동력으로 작용, 결국 내일에는 모두에게 큰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어 정 위원장과 장 사장이 9월 1일 오전 임금피크제 노사합의문에 서명함으로써 합의문은 효력을 갖게 됐다.

전문과 6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는 노사합의문은 우선 '어려운 경제여건과 언론계의 상황을 반영하여, 인건비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위적인 인력 구조조정을 억제함으로써 고용안정과 회사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임금피크제를 실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합의문은 또 '정년이 만 58세인 사원



1일 오전 7층 회의실에서 열린 임금피크제 노사합의문 조인식에서 정재용위원장과 장영섭사장이 합의서에 서명한 뒤 교환하고 있다.

들을 대상으로 만 55세가 되는 달의 다음달부터 퇴직시까지 임금을 동결하는 방식'으로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되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에게 보직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퇴직금 중간 정산제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합의문은 '회사는 임금피크

제 시행을 계기로 사원들의 복지향상과 고용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고 명시함으로써 복지향상을 위한 회사측의 노력을 사실상 의무화했다.

이와 관련, 노사는 금년도 임단협 과정에서 수당체제 개선 방안을 강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인사고과제 평가방식 변경 · 법인콘도 구좌증설 검토

노사는 오는 9월로 예정된 인사고과제 제 3차 시범실시와 관련, 현행 Yes/No 양자택일 방식으로 돼있는 '상향식 평가' 방식을 3단계 또는 5단계 척도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상사의 업무능력 등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등으로 평가하는 양자택일 방식의 경우 선택 문항이 제한돼 있어 공정한 평가가 어렵다는 상당수 조합원들의 비판여론(제1차 대의원 대회서도 지적)을 회사측이 수용한데 따른 것이다.

회사측은 또 사원복지 차원에서 법인콘도 구좌를 증설하고

지역별로 다양화할 것을 요구한 노조측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노사는 8월 29일 오후 정재용 위원장과 장영섭 사장 등 노사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금년도 3분기 노사협의회에서 '임금피크제 노사 잠정 합의안 마련' 이외 노조측이 제기한 9개항의 의제에 대해 논의, 이같이 결정했다.

사측은 또 회의에서 노조측이 '지방사원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아선 안된다'고 지적한데 "현재도 지방사원에 대한 승진 차별이나 특파원·해외연수자 선발시 불이익은 전혀 없다"면서 지방사원에 대한 인사제도 보완책으로 지사장 임기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경영진은 또 지사에 근무하는 지사장 후보들을 일정 기간 본사에 근무토록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장영섭 사장은 노조측이 '인력수급 계획을 사전에 노조측에 고지할 것'을 거듭 요구한데 대해 "정책결정전 사전에 노조에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밖에 노사는 ▲신규입사자 교육 프로그램 마련 ▲특파원 매뉴얼북 '제작' ▲지방 단독주재 지역 기사실 문제 등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 현실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노사협의회에는 노조측에서 정 위원장과 최태용 부위원장, 도광환 사무국장, 최현주 총무부장, 옥철 쟁의부장, 황희경 여성부장이 참석했다.

"홈페이지 설문조사에 적극 참여해 주십시오"

노조는 최근 홈페이지를 새로운 얼굴로 개편한 것을 계기로 홈페이지 초기화면을 활용해 매주 다양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성격에 따라 <전사원 대상>인 설문조사도 있으며 <조합원 대상>인 설문조사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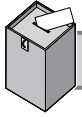
노조는 늦가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임금협상과 단체협상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오프라인 설문조사'를 광범위하게 진행할 것이며, 설문조사 결과를 임단협에 적극 반영할 것입니다. 즉 홈페이지를 통해 매주 이뤄지는 '온라인 설문조사'는 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위한 '기본자료 축적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조의 힘은 조합원은 물론 여러 사원들의 참여를 통해 커집니다. 비록 사소한 설문조사일지라도 조사에 적극 참여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 2면 참조)

노보만평

반종빈





임금피크제 표결결과 위원장 인사말

“회사발전 위한 원동력으로 삼아야... 사원복지 향상 적극 노력”

조합원 여러분! 그리고 사원 여러분!
노사가 잠정합의한 임금피크제 노사합의문이 여러분들의 성원으로 추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투표에 참여해 주신 조합원을 비롯한 선후배 사원들께 조합을 대표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투표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임금피크제 노사합의는 구조조정과 임금삭감 등 한파가 몰아닥치고 있는 언론계 상황속에서 어쩔수 없이 택할 수밖에 없었던 '차선의 선택' 이었다고 봅니다.
비록 우리 회사가 뉴스통신진흥법 제정, KTX 뉴스 서비스 사업 진출 등으로 다른 언론사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재정상태가 양호한 것은 사실이지만, 예방차

원의 자구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봉착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고통을 분담하는 어려운 결단을 내린 만큼 오늘의 결정이 연합뉴스 발전을 위한 원동력으로 작용, 결국 내일에는 모두에게 큰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다함께 힘을 모읍시다.
임금피크제 도입에 찬성했던 사람이나 반대했던 사람이나 방법론의 차이만 있었을 뿐 회사의 발전을 바라는 마음은 하나인 만큼 임금피크제 실시를 둘러싼 논의과정이 혹여 회사내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해선 안될 것입니다.
저희 18대 노조 집행부는 앞으로 '인위적인 인력

구조조정을 억제함으로써 고용안정과 회사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라는 임금피크제 도입의 정신과 합의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차질없이 지켜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노조는 향후 사원들의 복지향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임단협 과정 등을 통해 열과 성의를 다할 것입니다.

회사측도 임금피크제 시행이 사원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만큼 합의문에 명시된 대로 '임금피크제 시행을 계기로 사원들의 복지향상과 고용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임금피크제 논의 과정에서 노조에 힘을 실어주신 조합원과 사원 여러분께 사의를 표합니다.

8월 31일 연합뉴스 노조위원장 정재용 올림

임금피크제 질의 답변

- 1) 임금피크제 기본 원칙은?**
임금동결제입니다. 만 55세 되는 달의 급여(임금)를 기준으로 만 58세까지 동일한 임금을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 2) 임금피크제 대상과 실시시기는?**
정년이 만 58세 사원들이 대상이며 만 55세가 되는 달의 다음달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임금피크제가 시작되는 2006년 1월에는 만 56와 57세인 사원들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 3) 대상자들의 급여변동은?**
정기적인 호봉승급과 임금 인상시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승진으로 인한 승급과 직책부여시 책임수당은 받게 됩니다. 또 성과급이나 격려금이 지급될 경우에는 동일하게 지급받습니다.
- 4) 임금피크제와 고용안정과의 관계는?**
노사합의문에 임금피크제 시행의 목적으로 '인위적인 인력 구조조정을 억제함으로써 고용안정과 회사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라고 명시, 고용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장영섭 사장도 합의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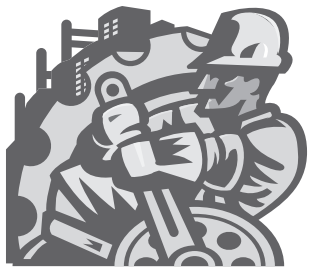
- 표결에 앞서 “회사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계기로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억제하는 등 사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 5)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에 대한 보직부여는?**
임금피크제 대상자들도 보직부여시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 6) 퇴직금 중간정산**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의 경우 언제든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지체없이 수용키로 했습니다. 임금피크제 대상 기간 동안에도 퇴직금 누진율은 그대로 적용되므로 개인별로 필요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 7) 임금피크제 보완책은?**
회사는 임금피크제 시행을 계기로 사원들의 복지향상과 고용안정에 더욱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노사는 책임수당, 호봉간 승급격차 해소 등 일부 수당체계에 대해 공동으로 연구, 금년 임단협 때 반영할 방침입니다.



8월29일 오후 본사 회의실에서 열린 노사협의회에서 노사대표들이 임금피크제 문제에 대해 논의 하고 있다.

제2회 연합참일꾼상 추천

노조는 8월 29일부터 9월 20일까지 제2회 '연합 참일꾼상' 후보 추천을 받는다. 추천대상은 조합원·비조합원을 망라한 전사원이며 팀이나 부서도 시상대상에 포함된다.



노조는 남다른 노력으로 창의성·성실성을 발휘하며 묵묵히 일하는 사원들을 적극 발굴하기 위해 지난 5월 '연합 참일꾼상'을 신설해 시상한 바 있다. 수상자에게 상금과 상패가 지급되며 상금은 단체 50만원, 개인 30만원이다. 특별한 추천 양식은 없으며 추천대상과 추천이유, 추천인을 기재한 추천서를 노조 이메일로 보내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노조는 제1회 '연합 참일꾼상' 추천 당시 어렵게 탈락한 후보들도 이번에 재추천될 경우 심사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다음은 연합 참일꾼상 운영내규다.

- 연합 참일꾼상 운영 내규
- 1. 포상 대상 및 목적 : 창의성·성실성 등을 바탕으로 회사발전 기여한 사원(비조합원 포함)이나 부서 혹은 팀, 특별한 업적이나 성과를 제시하지 않더라도 음지에서 묵묵히 일하면서 회사발전 기여하거나 다른 사원들의 귀감이 되는 행동을 하는 사원들을 적극 발굴해 포상함으로써 사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일할 맛 나는 직장'을 만들어 나가는데 본 상의 목적이 있음.
- 2. 포상자 선정 방식 : 노조 집행부의 발굴과 함께 조합원 및 사원들의 추천을 받은 뒤 집행부 회의를 통해 대상자 선정.
- 3. 추천방식 : 특별한 추천 양식은 없으며 조합원 또는 사원들이 추천 대상자와 추천 이유, 추천인 등을 상세히 기재해 노조 이메일로 제출하거나 직접 추천서를 작성해 노조 사무실로 제출하면 됨.
- 4. 상금 : 단체 50만원, 개인 30만원. 복수의 수상자가 있을 수 있으며 추천자가 없거나 적합한 수상대상자가 없을 경우 다음 분기로 넘길 수 있음.



사내외 각종 대출제도 안내해 드립니다.

1) 노동조합 대출

조합원이 대상이며 신청 다음날 최고 300만원까지 대출해준다. 연리 4.0%에 원리금 균등상환이며 상환 기간은 10개월이다. 단, 주택관련 자금이나 노조원 가족 의료비·교육비 등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면 최고 500만원까지 증액 대출하고 이 경우 대출기간도 최고 15개월까지 연장된다.(담당 : 노조 이은정 간사)

2) 사내 복지기금 대출

사내 복리후생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노사합의에 의해 운용되는 기금이다. (담당 : 인사부)

① 의료비 대부

사원 본인 또는 가족들에 대한 의료비를 100만원부터 최고 300만원까지 무이자로 대부해준다. 3년 균등상환.

② 특파원 부임자 자금대부

해외 특파원 부임자들에게 최고 1천만원까지 무이자로 대부해준다. 귀임후 6개월내에 전액상환해야 한다.

③ 지방 발령자 자금대부

무연고지 단독주재 지방에 발령된 사원이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최고 1천만원까지 무이자로 대부해준다. 단독주재 발령해제시 6개월내에 전액상환해야 한다.



야 한다.

④ 주택자금 대출

2년 이상 근속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 이상인 사원이 주택을 신축하거나 구입할 경우(국민주택 규모)

최고 3천만원까지 연리 4.5%로 대출해준다. 또 임차의 경우엔 1년 이상 근속하고 1년 이상 무주택인 경우 최고 2천만원까지 연리 4.5%로 대출해준다. 1천만원 초과인 경우 5년 균등분할상환해야 한다.

3) 사우회 대출

회사 사우회에서 입사 1년 이상인 사원에게 연리 5%를 적용, 300만원까지 대출해주며 24개월 균등상환이다.(담당 : 관리국 이위국장)

4) 언론인 금고

언론재단에서 언론사에 종사하는 임직원들의 복지와 생활안정을 위해 운용하고 있는 기금이다.(담당 : 경리부)

① 생활자금

1년 이상 근속한 직원들에게 연리 6%로 최고 1천만원까지 대출해주며 2~3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② 주택자금

2년 이상 근속한 무주택 사원들을 대상으로 연리 4.8%로 최고 6천만원(근저당 1순위의 경우)까지 대출해주며 10~20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단 중도금은 연리 6%이며 5년 균등분할상환해야 한다.

노조 새 홈페이지 반응 좋아.. 개통 이벤트도 성황

지난 달 8일 새로운 얼굴을 드러낸 노조 홈페이지가 조합원 및 사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산뜻한 파스텔톤 분위기의 디자인은 물론 새로 추가된 콘텐츠에 대해서도 호평이 이어졌다.

새 홈페이지 개통을 기념해 노조가 실시한 개통 이벤트에는 총 87명이 참여했으며, 고중기 조합원(정보사업부)과 김은우 사원(기획부)이 1등의 행운을 차지했다.

노조는 홈페이지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토론 문화를 북돋우는 한편 조합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를 적극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 홈페이지에 오른 축하의 글들

“다들 바빠서 조합원간, 사원간 대화가 부족한 것 같은데..

노조 홈페이지를 통해서라도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조합원 게시판에 잘 들어가지도 않다가 상품에 눈이 멀어 게시판을 보자마자 수정을 완료하고 이렇게 글까지 남깁니다. 홈페이지 개통에 애쓰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는 상품이 없더라도 자주 들르고 가끔 글도 남기겠습니다.”

“예전에는 솔직히 자주 들어오지 못했지요. 한달에 한번 될까 말까.. 보라빛 산뜻한 모습이 눈에 친숙합니다. 자주 들어와 선배들과 정을 나눌 맘이 팍팍 생깁니다. 노조! 사건만 몰고 오지 말고^^ 화이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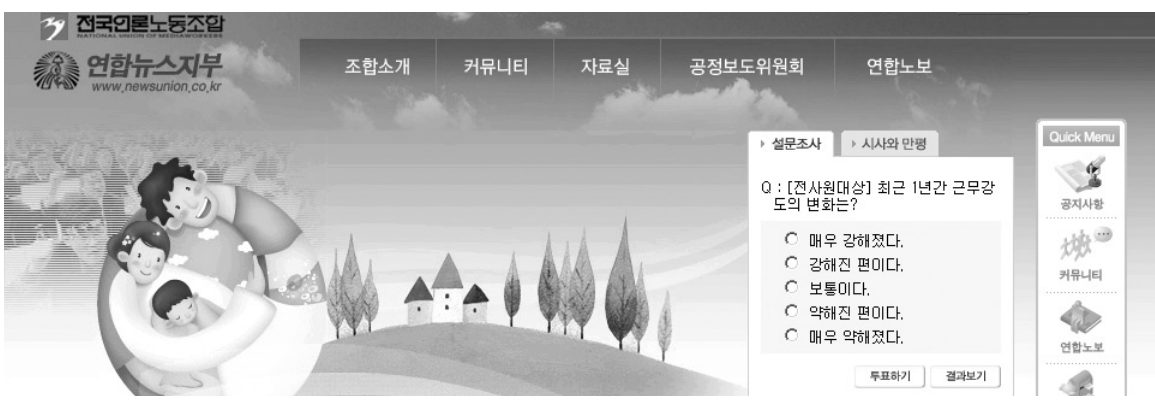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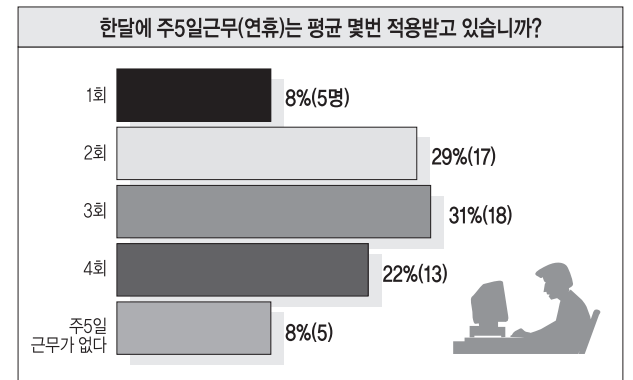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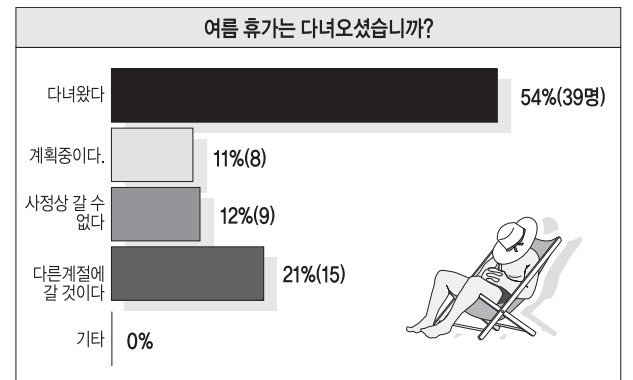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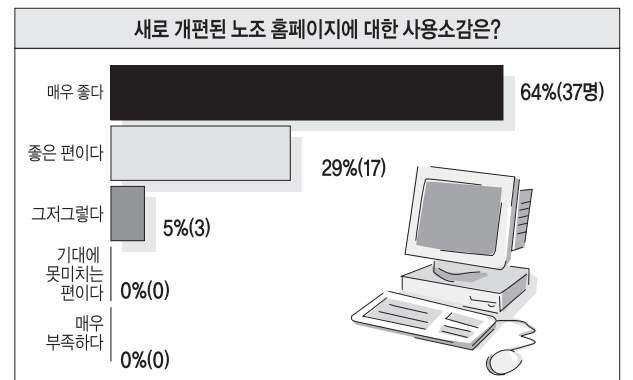
“‘연합노조, 전국언론노조의 모범’ 파문.이런 기사를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회사에는 이익증대, 사원에게는 열심히 일하면 대우를 받는 곳.복리후생에도 타사의 모범이되는 곳.이런 곳~ 뉴스를 들을 날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

“개통한지 2주정도 된것같은데요.머뭇머뭇 눈치보다 이제서야 축하글을 올리네요^^ 홈페이지가 깔끔하고 사용하기 쉽게 만들어진것같은데요.자주 이용할수있게 사원들과 노조원들 서로가 서로에게 귀 기울일수 있었으면 좋겠고 많은 정보가 공유될수 있는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노조 홈페이지 문턱이 헤어지고 닳아야 좋죠?”

“희망의 파란하늘에서... 아찔한 노란 하늘까지.. 고뇌 많은 노조 홈페이지 답습니다. 축하합니다.”

●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최전선에서

“외국어뉴스국에 대한 편견 버려야”



장동우 영문경제뉴스부

수습기간을 마치고 연합뉴스 3층 외국어뉴스국에서 근무한지 3개월이 됐다. 우리국 공식 명칭은 외국어뉴스국이지만 ‘영문뉴스국’이나 ‘영문뉴스부’로 잘못 부르고 있는 사원들도 있다.(마치 “연합뉴스”를 “연통”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다).

회사 홈페이지를 보면 알겠지만 영어 이외에 일본어와 중국어 서비스도 하고 있다. 회사는 다른 언어 서비스도 기획중이다.

영문뉴스부와 영문경제뉴스부, 영문북한팀 등으로 나뉘어져 있는 외국어뉴스국은 성격상 구성원의 국적이 매우 다양하다.

소수의 인원으로 짜여있기 때문에 개인당 취재영역이 상대적으로 넓은 편이다. 외국의 독자들이 주고객이기 때문에 지엽적인 사안들은 과감히 ‘킬’하고 대체로 굵직하거나 독특한 소재의 뉴스를 주로 서비스하고 있다.

외국어뉴스국에도 뛰어난 ‘선수’들이 많다. ‘부시는 독서 중’이라는 기사의 주인공인 특종 기자 K모씨. 점심 먹는 적을 본 적

이 없어 ‘비타민’으로 체력을 유지하는 게 아니냐는 소문을 불러일으킨 바 있는 다작의 주인공 L모씨, ‘언론고시생’들의 필독서인 Power Dic의 공동 필자인 K모 차장.(책을 공짜로 얻을 수 있을까 기대했지만 전혀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선수’들의 정열과 전문성, 그리고 노력들이 어우러져 외국어뉴스국이 움직이고 있다.

외국어뉴스국이 늘 외국어로 ‘살라살라’ 얘기를 나누는 분위기일 것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오히려 외국인 사우들로부터 한국어(심지어 한자)에 대해 따끔하게 충고를 받는 경우도 있다. 행여 언어의 장벽을 이유로 접근하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큰 착각이다.

또 하나 놀라운(?) 것은 많은 선배 기자들이 대부분 순수 국내파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국어가 아닌 언어로 기사를 부담없이 씩씩 쓰는 것을 보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왔는지 대략 짐작해 볼 수 있다.

외국어뉴스국을 포함, 연합뉴스 일원으로 근무한 지 8개월 가량 된

지금, 안타까운 점은 외국어뉴스국을 ‘여유로운 부서’로 오해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는 점이다.

외국어뉴스국도 치열한 뉴스생산의 한 현장이라는 점을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또한 편집국 시스템의 시각에서 외국어뉴스를 바라보는 편견이나 고정관념도 버려야 한다. 외국어뉴스국이 한국의 대외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된다.



● 이달의 참글상

이달의 참글상에 격려상 1편 선정

노조 공정보도위원회(간사 권정상)는 이달의 참글상(7월)에 사회부 한승호 조합원의 『〈인터뷰〉 ‘외국인 노동자 전용의원’ 김해성씨』, 『날개 꺾인 ‘코리아 드림’의 구명선』을 격려상으로 선정했다.

8월 송고분에 대한 이달의 참글상 후보작은 오는 9월 9일까지 노조나 각 공보위원회에 추천하면 된다.

이달의 조합활동

- 8월8일 : 4개월여에 걸친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작업 완료... 새로운 홈페이지가 조합원을 비롯한 전 사원들의 건전한 토론과 정보교류의 장이 될 수 있기를...
- 8월9일 : 임금피크제 제4차 실무협상을 열어 주요 논점에 대해 토론... 실무협상은 4차 회의로 종결되고 사무국장-경영기획실장 및 위원장-경영진간 협상으로 좁혀 구체적인 안을 만들기로...
- 8월9일 : 집행부회의를 열어 임금피크제 및 노사협의회 대책에 대해 토론한 뒤 일부 서울지역 대의원들과 저녁식사를 하며 사내 현안에 대해 의견 교환...
- 8월10일 : 정위원장과 사무국장이 인천지사를 방문... 인천 시내 한 음식점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노조 집행부와 지사 조합원들은 회사 현안과 함께 지사에서 지사로 승격된 뒤 인천지사 역할 등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



- 8월16일 : 정위원장이 프레스센터에서 광복 60주년을 맞아 언론노조 주최로 열린 ‘한일 언론인 공동심포지움’에 참석...
- 8월16일 : 정위원장과 사무국장이 충북지사를 방문, 충북지사 사원들과 간담회 개최. 최근 성장추세에 있는 청주 지역사회의 분위기를 반영한듯 회사와 충북지사의 발전 방안 등에 대한 토론이 주류를 이뤄...



- 8월18일 : 사무국장은 경영기획실장을 만나 임금피크제 실무협상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논점들에 대해 논의...
- 8월22일 : 정위원장과 사무국장이 과천 정부청사를 방문, 과천 청사에 출입하는 조합원들과 점심식사를 함께 하며 사내 현안들에 대해 의견 교환...
- 8월23일 : 집행부회의를 열어 임금피크제 막판쟁점에 대해 토론하고 노사협의회에 상정할 안건들을 선정... 회의후 일부 서울지역 대의원들과 2번째로 저녁식사를 하며 사내현안들에 대해 의견 교환...
- 8월24일 : 정위원장과 사무국장이 울산지사를 방문.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술잔을 돌리면서 지사 승격후 달라진 근무환경 및 임금피크제 실시 문제 등에 대해 논의...
- 8월29일 : 제2차 노사협의회를 열어 내년부터 임금피크제를 실시기로 잠정합의. 정위원장과 장시장 등 노사측 참석자들은 또 임금피크제 실시에 따른 보완책, 사내복지와 관련된 현안들에 대해서도 집중논의...

- 8월30일~31일 : 임금피크제 잠정 합의안에 대해 전사원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실시, 75% 가까운 찬성율로 추진 받아..

